한농연 회원 5천여명이 농협중앙회 앞에서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하며 전경들과 대치하고 있다.

한농연 !!

협동조합개혁의 선두에 나서다

1. 한농연 협동조합개혁운동의 닻을 올리다.

4월 10일 한농연중앙연합회는 농협중앙회 앞 마당에서 협동조합개혁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협동조합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한농연 중앙임원을 비롯한 도 회장, 이사, 전국농민연대(준) 소속 농민단체장들이 참석하였으며 ▲협동조합개혁 선포문 낭독 ▲한농연 협동조합개혁과제 발표 ▲한농연 협동조합개혁 결의문 발표로 이어졌다. 또, 농협중앙회를 방문해 개혁과제를 전달하였으며 이번 기회에 농민조합원을 위한 실질적인 협동조합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 왜 협동조합개혁운동에 나서는가?

1961년 출범한 종합농협은 40여 년 동안 괄목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협동조합은 각종 농자재의 공급처로서, 상호금융을 통한 농업금융자금의 제공 주체로서, 조합원의 농축산물의 가공 · 판매사업과 각종 정부 농정대행사업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속에서 일정부분 한국 농업의 성장과 발전에 농협이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400만 농민과 일반 국민들에게 정부의 농업정책과 명령만을 충실히 따르는 '준공공기관' 내지 '농촌 금융기관' 정도로 인식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오

히려 무리한 농가부채 회수 등으로 인한 농민 조합원의 잇단 자살사건까지 일어나면서, 농민 조합원들로부터 '임직원만들만의 조직'으로 비판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민 조합원의 경제적 권익과 지역농업의 발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회원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자체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엄혹한 WTO 체제 속에서 DDA 협상과 FTA 등 더욱 심해지는 개방 압력을 이겨내고, 농민 조합원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시키고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설 수 있는 잠재적 주체로서 협동조합이 거듭나야 한다. 특히 기존의 조직 관리 중심의 관행을 벗어 던지고, 과감한 조합원 중심의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인적 · 조직적 혁신을 이뤄야 한다. 농협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자금 · 조직 · 정보력과 농축산물 시장 및 농업금융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농민 조합원이 애로를 겪고 있는 농축산물의 판매와 저렴한 농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농협은,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의 선두에 서야 한다. 경쟁력 있는 지역 농축산물의 가공 · 판매 등의 마케팅에 힘을 쏟아야 하고, 이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 및 시장 개척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각종 농정활동을 농협 및 농민 조합원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신경 써야 한다. 향후 10년 내지 20년 동안의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시나리오를 농민 조합원들과 함께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 속에서 농협은 지역농업 발전의 강력한 견인차이며 효과적인 지원 주체로서, 농민 중심적인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다시 돌아온 협동조합개혁의 기회

농민단체가 본격적으로 협동조합개혁운동을 시작한 것은 1987년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요구가 급격히 분출된 이후 농협민주화를 위한 조합장 직선제였다. 61년 종합농협 출범 이후 농민들이 협동조합에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이 때부터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의의를 지니고 시작한 협동조합개혁운동은 1994년을 맞아 큰 전환기를 이루게 된다. 88년 조합장 직선제를 비롯한 협동조합법 개정은

▲ 농협중앙회 개혁을 온몸으로 부르짖으며, 전여농 회원들이 농협중앙회 철문에 매달려 있다.

협동조합의 민주성 확대라는 의의가 있었지만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 · 제도 · 관행 속에 남아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개혁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동조합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한농연을 중심으로 농민단체들은 협동조합의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1994년에

◀ 한농연 회원 2만여명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협동조합 개혁'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설치된 농어촌발전위원회(농발위)에서 개혁논의 과정에 포함된다. 그 과정에서 농민단체와 학계, 협동조합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지만, 농민단체의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고 국민의 정부에서 협동조합개혁논의의 주요한 골격이 형성되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1998년 농업인의 대폭적인 지지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협동조합개혁을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하고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것은 ▲중앙회 조직통합 및 신경분리 문제 ▲상향식 민주적 조직으로 전환 ▲조합의 책임경영체제 문제 ▲정부의 감독 기능 문제 ▲개혁의 주도세력 문제였다.

많은 관심과 논란 속에서 추진되었던 협동조합 개혁과제는 일단 2000년 7월 1일 통합 중앙회가 출범하여 일단락 되었으며, 이후에 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측면에서 개혁의 취지와 효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문제가 남게 되었다.

그러나 농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조합원은 다시 협동조합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1999년 협동조합개혁위원회의 활동으로 얻은 성과가 농민조합원에게 까지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 '참여정부'도 협동조합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농협중앙회 스스로도 개혁안을 제시하며 농민조합원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이제 농민조합원 스스로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열망과 관심을 모으고 단결해 다시 한번 찾아온 협동조합개혁의 기회를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

4. 올바른 협동조합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협동조합 조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실질

적인 개혁과제를 동시에 추진한다.

2000년 농·축협 중앙회 통합 이후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가 합쳐 중앙회 차원의 물리적 결합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구조와 중앙회-도지역본부-시·군지부-회원조합의 수직적인 4단계 조직은 회원조합의 창의적인 발전을 막고, 관리중심 조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실질적인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조직체계를 신경분리를 중심으로 연합회 체계로 전환한다.

관리중심 조직에서 운동전담 조직과 사업전담 조직으로 바뀌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연합회 체계로 바꾸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들을 실천해야 하는데, 농업지원은행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 경제사업연합회로 가기 위한 회원조합의 역량 문제, 현행 실질적인 4단계 조직을 연합회 체계로 바꾸기 위한 개선과제들이 필요하다.

▶농협중앙회의 비대화를 막고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 중심의 사업체계를 확립한다.

2000년 농·축협중앙회의 통합 효과로 제기된 중앙회 슬림화는 실질적으로 무분별한 자회사의 설립, 하위직 우선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농민조합원 봉사 약화, 축산 부문의 사업 약화 등으로 왜곡되게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비대화 노력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설립, 신용사업 통합 기도, 사업장의 조합이양 약속 미이행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 중심의 운용구조를 확립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 중심의 민주적인 통제장치와 사업결정과 이익배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

▶협동조합 운영의 비민주성과 비효율성을 타파한다.

협동조합이 임직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농민들의 협동조합 참여를 가로막아 왔으며, 협동조합이 농가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운영을 공개하고 농민조합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경영에서 비효율성과 형식성을 타파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협동조합의 운동체적 기능을 회복한다.

협동조합이 경영주의에 입각하여 운동체적 기능을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 스스로 사상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결국 조합원의 참여와 다른 사업의 활성화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운동체적 기능을 회복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대외협력, 대정부활동, 지도감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5. 협동조합 주요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

한농연은 위와 같은 협동조합개혁 방향아래 농협중앙회 11대 개혁과제와 회원조합 9대 개혁과제가 농민조합원과 협동조합 앞에 놓인 시급한 개혁과제로 보고 있다. 다음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개혁방안이다.

◉ 농협중앙회 개혁방안(11대 과제)

문 제 점	개 혁 내 용
• 실질적인 4단계 조직 • 고비용, 저효율 체제	• 협동조합 조직체계를 3년 이내에 전환 • 도지역본부장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 대표성 강화 • 시 · 군 지부를 폐지하여 회원조합에 기능 이관
• 신용사업 중심 • 경제사업 적자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 품목연합회를 활성화하여 경제사업 강화
• 형식적인 지도사업	• 지도사업 강화와 전면적인 개혁
• 중앙회 사업, 운영에 조합원과 회원조합 의견 배제 • 투명성 부족	• 이사회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앙회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조합원의 감독기능 활성화
• 자회사의 주식회사화 • 직원 전문성 부족	• 농협중앙회 자회사에 대한 엄정한 사업수행 평가 실시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원 및 인사제도 개선
• 회원조합 발전 저해 • 계통구매사업의 중앙회 수익 중심	• 회원조합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정 개정 • 영농자재 · 생활물자 계통구매사업 개혁

◉ 회원조합 개혁방안(9대 과제)

문 제 점	개 혁 내 용
• 경제사업 부진 • 조합부실 심화	• 경제사업 규모화와 자립경영을 위한 회원조합 구조개혁 •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회원조합 내부 제도 개선
• 고금리, 고예대마진 • 부동산, 보증인 위주 대출	• 조합원 중심의 상호금융 운용원칙 확립
• 농민조합원의 참여 배제 • 형식적인 지도사업	• 조합원의 사업 참여 확대 • 조합원 참여 중심의 지도사업 혁신과 강화
• 경영의 투명성 부족 • 경영의 전문성 부족	• 운영공개의 의무화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 직원체계와 인사제도 개선 •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 조합장선거체제 개편